

현장과 시각

금융위기가 무뎠기 때문이라고...



박지경

서울취재팀 차장

은 나라가 금융위기로 휘청거리자 금융감독원은 지난 3일 오후 "시장의 악성 루머 일제 단속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금감원이 증권선물거래소 등과 함께 "시장 악성 루머 합동 단속반"을 꾸려서 악성 루머의 진원지를 파악하고, 허위사실 유포자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는 것이다. 또 악성 루머 단속반원을 증권사 객장 등 현장에 직접 투입하고, "시장 악성 루머 신고센터"를 설치해 제보를 받겠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금융 당국의 이 같은 방침에 대해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금융 불안의 근본 원인을 고치려는 노력은 제쳐놓은 채 경제 주체들의 입을 틀어막는 공안정국식 발상이라는 것이다. 현재의 금융위기는 일관성을 상실한 정부 정책이 시장에서 신뢰를 잃어버렸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대부분 경제인들은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는 정책과 경제팀의 인적 쇄신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또 금융 당국의 이 같은 방침에 대해 필요성 논란도 일고 있다. 우선 악성 루머를 판단하는 기준이 애매하다. 금감원은 중점 단속사항으로 ▲ 근거 없는 유포성 위키설 등 금융불안 조장자료 작성 및 유포 ▲ 특정 기업에 대한 음해성 루머의 생산 및 유포 ▲ 기타 객관적 근거 없이 루머 확산을 조장하는 자료 등의 작성 및 배포 등을 꼽았다.

하지만, 주식시장에는 하루에도 수백에서 수천여건의 시장상황과 관련한 각종 의견과 정보가 유포된다. 물론 그 가운데 허위사실을 담은 자료 등이 나올기도 하지만 허위사실 유포는 경제가 휘청거리려는 일은 거의 없다. 한 증권사의 투자분석가는 "루머 판단 기준만 보면 자의적으로 해석될 여지가 많다"고 우려했다.

김삼조 경제개혁연대 소장은 "통상적인 경제 예측과 전망치를 가지고 평가하는 글이나 리포트 등에 대해서도 '금융 불안을 야기한다'는 이유로 단속에 나서지 않겠다"고 말했다.

더욱이 금융 당국의 이 같은 방침은 시장의 정상적인 '위기 경보' 기능을 위축시켜 자칫 더 큰 위기를 부를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또 금감원이 악성 루머 단속반원을 증권사 객장에 투입해 단속에 나선다는 것도 현실성이 없다는 지적이다. 주식시장의 거래 자체가 온라인을 통해 이뤄지고 있으며, 각종 정보 유포 역시 마찬가지로 때문이다.

정부는 현재의 금융불안이 이명박 대통령의 권위주의적 리더십과 경제팀의 시대착오적인 인식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지적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위기 가능성이 아예 없는 것도 아닌데 근거 없는 뜬 소문으로만 일축하고 시장의 신뢰를 받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 한다면 한국경제가 진짜 위기로 내몰릴 수도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jkpark@kwangju.co.kr

2008 미국 대선

페일린, 논란속 부통령 후보 공식 지명

의혹·자질 시비 정면 대응...사상 두번째 女부통령 후보

미국 공화당 부통령 후보 지명 이후 10대 딸의 임신 등 잇단 스캔들로 인해 자적시비 등 논란의 대상이었던 새라 페일린 알래스카 주지사가 3일 후보직을 수락했다.

이로써 올해 44세 여성인 페일린은 공화당 역사상 최초로, 미국 역사에선 1984년 민주당 소속이었던 제럴딘 페라모에 이어 두번째 여성 부통령 후보가 됐다. 공화당은 또 이날 전당대회에서 존 매케인 상원의원을 대통령 후보로 공식 지명했다.

이에 따라 오는 11월4일 실시되는 제44대 미국 대통령 선거는 공화당에선 매케인-페일린, 민주당에선 버락 오바마-조지프 바이든이 각각 정·부통령 후보가 돼서 맞붙게 됐다. 페일린은 이번 대선에서 흑백대결, 부통령 후보들은 성(性)대결을 벌이게 됐다.

미국 중앙정치무대에 거의 알려지지 않았다가 지난 달 29일 매케인의 '부통령 후보 깜짝 카드'로 대선전에 혜성처럼 등장한 페일린은 이날 부통령 후보 수락 연설에서 자신은 인기(the good opinion)를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국민에게 봉사하기 위해 부통령 후보직 지명을 수락했다며 부통령 후보 지명 후 제기된 자신을 둘러싼 각종 의혹과 자적시비에 대해 정면으로 반박했다.

알래스카주의 작은 도시인 와실라시 시의원과 시장이 이어 지난 2년간 주지사를 지낸 게 경력의 전부인 페일린은 외교정책 및 안보 관련 경험이 전무한 데다가 17세 딸의 임신 사실이 드러나고 주지사 재임시 옛 제부(弟夫) 해임 압력 의혹 등이 제기돼 부통령 후보 자질 시비 및 정치적 논란의 대상이 됐다.

뿐만 아니라 그녀를 러닝메이트로 결정한 매케인은 국정운영의 근간인 인사능력에 대한 비판에 직면했고 매케인 진영의 인사검증 시스템이 여론의 도마에 오르기도 했다.

페일린은 연설에서 "나는 기성 정치권에 속한 사람이 아니지만 매우 빠르게 (정치를) 배워왔다"면서 "최

근 며칠동안 든든한 배경을 가진 정치엘리트가 아니면 일부 언론들은 단지 그 이유만으로 자격을 갖추지 못한 후보로 간주하는 것을 견뎌왔다"고 자신을 둘러싼 의혹과 비판을 정면으로 받아냈다.

그녀는 또 "나는 그들(언론)의 인기를 얻기 위해 위싱턴으로 가는 게 아니라 이 나라 국민들에게 봉사하기 위해 워싱턴으로 가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페일린은 이어 민주당 대통령 후보인 오바마를 강도 높게 비판, 역공에 나서기도 했다. 그녀는 연설에서 "알

공화당 전당대회

래스카 주지사가 되기 전에 나는 고향의 시장이었지만 이번 대선에 나선 상대 후보는 이런 경험을 경시하는 것 같다"면서 "작은 도시의 시장이나 커뮤니티 조직 활동가나 비슷한 처지지만 시장은 그나마 실질적인 책임이라도 있다"며 대통령 후보가 되기 전 커뮤니티 조직활동가로 일했던 오바마의 경력을 꼬집었다. 페일린의 연설이 끝난 뒤 공화당은 베트남전 영웅 매케인을 공화당의 대통령 후보로 공식 지명했다. 매케인은 4일 밤 대통령 후보 수락연설을 실시하고 대선 출정식을 가질 예정이다. 특히 생애 두번째 대권 도전에 나서는 매케인은 72세로 미국 역사상 최연소 대선 대통령 후보 중 최고령자로 기록되게 된다. /연합뉴스



미국 공화당전당대회 부통령 러닝메이트 새라 페일린 알래스카주지사 연설 뒤 페일린의 딸 윌로우, 막내동생 트리그를 안고있는 남편 토티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존 매케인후보가 페일린 지사의 딸 파이퍼와 애기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부모와 닮은 이성에 매력 느끼는 현상은 진화의 압력이 원인

남자가 어머니와 비슷한 여성에게 끌리는 현상은 진화에 뿌리박은 것이라는 새로운 연구가 나왔다.

헝가리 페치대학 연구진은 사람들이 이성(異性) 부모의 생김새와 비슷한 이성에 강력한 매력을 느끼는 현상을 연구하기 위해 턱의 너비와 입-눈썹 간 거리 등 다양한 요소의 비례를 각각 달리한 14개의 얼굴 유형 모델을 만들었다.

연구진은 이어 각각 두 쌍의 부모와 한 쌍의 얼굴로 이루어진 52개의 집단의 성인 312명의 얼굴을 측정해 결과 여성의 짙고 아버지 사이와, 그리고 남성의 짙고 어머니 사이에 의미있는 수준의 유사성 상관 관계를 발견했다.

연구진은 또 일반인들 사이에서 무작위로 추출한 얼굴들을 상대로 평가단계 같은 실험을 하자 결과 평가한 역시 무작위 사진들 가운데서 같은 집단을 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흥미있는 현상은 남녀가 장차 짝이 될 사람을 탐색하는 과정에서 각기 다른 얼굴 부위에 관심을 집중한다는 것인데 남성의 여인과 어머니는 입술 두께와 입의 너비, 턱 길이와 폭에서 유사성을 나타낸 반면 여성에게 중요한 것은 남성의 입-눈썹 간 거리, 얼굴 길이, 양눈 사이 거리와 코의 크기로 나타났다.

연구진은 이런 얼굴 특징을 선택하는 것은 심리나 사회화보다는 진화의 압력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日 자민 총재 선거 아소 우세속 4파전

오는 22일 실시되는 일본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사실상 출마를 선언한 아소 다로(麻生太郎) 당 간사장이 우위를 달리고 있는 가운데 고이케 유리코(小池百合子) 전 방위상, 이시하라 노부테루(石原伸晃) 전 정조회장, 요사노 가오루(與野野野) 경제재정상이 출마를 밝히며 4파전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

교도(共同)통신이 지난 2~3일 실시한 전화 여론조사에서 자민당 의원 가운데 차기 총리로 적합한 인물을 묻는 질문에

아소 간사장이 35.4%를 얻으며 압도적으로 1위에 올랐다. 출마 가능성이 희박한 고이치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郎) 전 총리가 15.0%를 기록하며 2위를 차지한 데 이어 고이케 전 방위상은 9.2%로 3위에 올랐다. 마스조에 요이치(舛添要一) 후생노동상이 8.5%를, 이시하라 전 정조회장이 7.1%로 뒤를 이었다.

아시아(朝日)신문이 4일 보도한 여론조사 결과에서도 아소 간사장이 30%로 1위를 기록했다. 여야 전 정치인을 상대로 실

태국 정국수습 위해 국민투표 실시키로

태국정부는 4일 반정부 시위 사태가 격화함에 따라 이를 수습하기 위한 방안으로 국민투표를 실시하기로 했다.

속삭 키엣수라는 문화부 장관은 이날 방콕 시내 쉿탕타나 거리에 있는 태국군 최고사령부에서 사막 순다라벳 총리 주재로 비상 각료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기자회견을 밝혔다.

사막은 국민투표가 정국수습의 최선책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그는 이날 오후 이와 관련된 대국민 연설을 할 예정이다. 속삭 장관은 국민투표는 국정

자문기관인 국가위원회의 주도하에 실시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국민 여론 청취를 위한 국민투표의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앞서 사막 총리가 총재를 겸하고 있는 집권당 국민회의(PPP)의 수턴 크랑사영 의원은 ▲ 정부 퇴진-의회해산과 조기총선 여부 ▲ 반정부 시위대인 국민민주주의연대(PAD)의 해산 여부 ▲ PAD가 제안한 새로운 의회체제에 대한 거부 등 3가지 항을 묻는 국민투표를 실시하자고 제안했다. /연합뉴스

Real estate advertisement for (주)옥션코리아. Includes contact info: 062-222-8446, H.010-3666-8446. Lists various properties under categories like '근린주택', '주택', '아파트', '상업', '토지', '농가관련사업', '기타'.

Real estate advertisement for '대인동심일부동산'. Features '모델 목욕탕 및 각종 상가건물' and '수원지구 건물임대'. Includes contact info: 031-222-1140.

Real estate advertisement for '한국부동산 공인중개사'. Promotes '수익성 최고 원룸, 전, 담' and '수익성 최고 상가, 주택 상가건물'. Includes contact info: 082-374-2880.